

내년 예산 7천억 편성...‘그린웨이브 영암’ 실현 박차

전년比 77억 ↑ ...군민 1인 20만원

영암형 농촌기부수당 53억원 책정

ESC 관광거점, 농·산업 디지털 전환

영암군이 내년도 본예산 7천191억원을 편성하고 ‘그린웨이브 영암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7천114억원보다 1.08%인 77억원 증액된 수치로, 일반회계는 51억원 (0.78%) 증가한 6천532억원, 특별회계는 26억원 (4.13%) 증가한 659억원이다.

영암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최근 ‘제50회 영암군민의날’ 발표한 새로운 미래 비전 ‘그린웨이브 영암’ 실현에 중점을 뒀다. 미래 비전은 ▲순환경제 선도 도시 ▲ESC (환경 스포츠 문화) 관광거점 ▲농·산업 디지털 전환 ▲미래지향적 정주 환경 ▲영암형 기본 행복 사회 조성 등 5가지 전략목표다.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농림 해양수산 1천673억원 (23.3%) ▲사회복지 1천606억원 (2.23%) ▲환경·보건 958억원 (13.3%) ▲국도·교통·지역개발 770억원 (10.7%) ▲공공행정·교육 487억원 (6.8%) ▲문화·관광 445억원 (6.2%) ▲중소기업 및 에너지 104억원 (1.44%)이다.

5가지 전략목표 주요사업과 예산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에너지 이익공유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료 생산지원 및 경축순환농업 구축 57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1억원, 지역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계획수립 13억원, 에너지 자립마을 및 수소 도시 조성 6억원 등이다. 아이·청년-어르신 모두가 차별 없이 지원받고 활동할 수 있는 영암형 기본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해 ▲군민 1인당 상·하반기 10만원씩 총 20만원 지급하는 영암형 농촌기부수당 53억원 ▲청소년 및 청년 문화바우처 16억원 ▲학교 급식사 운영비 지원 7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억원

등이다. ESC 관광거점 조성 사업으로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17억원 ▲국립 마한역사 문화센터 건립 13억원 ▲영암 스테이션F 조성 8억원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 2억원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 96억원 등이 포함됐다. 첨단 기술과 접목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안정, 로컬푸드 플랫폼 확대 등 영암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대거 예산을 반영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376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65억원, 전락작물 직불금 49억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20억원, 지역특화 및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80억원 등이다. 미래형 정주 도시를 위해 ▲삼호 용양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79억원 ▲삼호 2배수지 설치 63억원 ▲영암 교통지구 도시개발사업 35억원 등이 편성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액 여파로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변화와 혁신을 구체적인 성과로 완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영암군의회는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영암=나동호 기자

신안군, 낙도 주민 의료 사각지대 해소 앞장

7월부터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흑산·신의·장산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신안군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를 실시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사진〉** 이번 이동 진료는 금융산업 공익재단과 신안군복지재단이 함께 하는 ‘도서 낙도 의료취약지 치과 이동 진료 운영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원된 치과 이동 진료 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첫 진료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515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흑산면 4곳과 신의, 하의, 장산 등 4곳의 경로당을 잇달아 방문하며 맞춤형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주요 진료 내용은 구강검진,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의치 세정 교육 등 주민들의 구강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흑산면 진리 1구에 거주하는 김모 (80대) 씨는 “힘들게 배 타고 물으로 나가지 않고 치과 버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줄은 몰랐다”며 감사를 표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기적인 순회진료와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 장비 확충, 고령층 집중 관리 프로그램 도입, 도서 지역 맞춤형 방문 주기 조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해 더 많은 주민이 치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안군의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은 섬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양훈 기자



최근 삼호읍에서 열린 영암군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착공식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삼호읍에 로컬푸드 복합센터 첫삽

지방소멸기금 20억 투입...내년 9월 개장

영암군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에 나섰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삼호읍 삼호대교 입구 건립 부지에서 우승희 군수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 복합판

매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 센터 건립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면적 424.95㎡ 규모의 단층구조로 조성된다. 내부는 농산물 직매장을 비롯해 로컬카페, 소포장실, 사무실 등 편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내년 6월까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출하 농가 조직화와 운영 조례 제정 등 준비과

정을 거쳐 9월 정식 개장할 방침이다. 센터가 문을 열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상생 유통망이 구축돼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신뢰를 높이는 상생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목포시의회, 민간위탁사무 효율적 운영 논의

연구 용역...조례 정비·정책 반영

목포시의회는 23일 “의원연구단체 ‘주민재정 자치클린’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효율적 운영 방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연구용역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성·효율성·투명성 제고와 함께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고경욱 회장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용역 관계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했으며, 시 재정이 수반되는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청취하고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민간위탁 현황 분석 ▲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한 조례 개선방안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다. 참석 의원들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조례 정비 및 정책 반영에 뜻을 모았다. 고경욱 회장은 “민간위탁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평가·감독체계가 명확해야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목포시 민간위탁 정책의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운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멋·맛·흥’ 예향 진도서 예술 영감을~”

郡, 30일까지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작가·미대생 등 초청...운림산방 등 탐방

진도군이 전국 예술인들을 초청해 ‘예향(藝鄕) 진도’의 멋과 맛을 알린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과 (사)진도군관광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말을 활용해 총 2회에 걸쳐 ‘진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미술협회 소속 작가와 미술 전공 대학(원)생, 교원 등 예술인 6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2박3일간 진도에 머물며 천혜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창작의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갖는다. 진도군은 ▲운림산방 ▲강강술래 ▲씻김굿

▲진도북놀이 등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으로, 예술인들이 영감을 얻기에 좋은 예향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우선 일정 첫날은 운림산방을 배경으로 한 작품 활동과 남종화 특강, 진도북놀이 체험 등을 통해 진도의 예술혼을 느낀다. 이튿날에는 진도 미술관 탐방, 토요민속공연 관람, 세방낙조 감상 등을 통해 예술적 감각을 깨우고, 마지막 날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조도면을 찾아 조도등대와 진도타워 등을 둘러보며 섬 고유의 정취를 만끽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예술인들이 진도에서 느낀 감동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예향 진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과 관광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강진군, 오는 29일 ‘향기 품은 요리 경연’

오감통시장서 전국 15팀대결 펼쳐

특산물 활용 체험·시식 등 오감 선사

강진군이 지역 특산물과 ‘향기’를 접목한 이색 요리 축제로 오감통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9일 강진읍 오감통시장 일원에서 ‘향(香)으로 즐기는 강진-지역 특산 향토요리 체험 및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시각·청각 위주 축제에서 벗어나 ‘후각’을 자극하는 감성형 콘텐츠를 도입,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의 백미인 요리경연대회는 ‘강진의 향을 담은 한 접시’를 주제로 열린다.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 15팀이 참가해 향 활용도, 지역성, 창의성, 맛 등을 겨루며, 대상(1

50만원),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각 50만원) 등 총 15팀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향토요리 체험 부스에서는 강진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즉석 조리과 시식이 가능하며, 향기 체험관에서는 지역 차(茶)와 약초 향, 디퓨저 등 향기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푸드존과 특산물 판매 코너, 향기 굿즈 만들기, 향 관련 퀴즈 이벤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가 행사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향’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통해 강진만의 차별화된 감성을 전달하는 시도”라며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오감통 시장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무안농협 하나로마트 신청사 시대 개막

지난 20일부터 영업...로컬푸드 존 확대

내달 8일까지 순금 10돈 등 경품행사도

무안군의 핵심 생활 인프라인 무안농협 하나로마트가 신축 종합청사에서 새 시대를 열었다. 23일 무안농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을 연 신청사 하나로마트(사진)는 그동안 군민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협소한 매장, 혼잡한 동선, 만성적인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폭 넓어진 공간과 체계적으로 정돈된 고객 동선은 쾌적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존’을 대폭 확장한 것이 눈에 띈다. 무안 양파, 고구마 등 신선하고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설했다. 또한 신선식품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신 냉장·저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무안농협은 신청사 오픈을 기념하며 지난 20



일부터 12월8일까지 19일간 역대급 규모의 ‘초대형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총 100명에게 경품이 돌아가는 이번 행사는 군단위에서 보기 힘든 화려한 경품 구성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순금 10돈을 비롯해 900ℓ 프리미엄 냉장고, 4도어 김치냉장고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무안농협 신청사 이전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무안을 중심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로마트의 방문객 증가는 주변 상권의 소비 흐름을 자극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안=김상호 기자